

내수부진에 2분기 마이너스 성장...지역민 경제심리 부정적

전분기 대비 GDP 0.2% 감소...1년6개월만에 역성장 전환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 2년 2개월째 100 이하 머물러

광주·전남지역 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경제도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해지면서 올해 2분기(4~6월)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으로 전환했다. 지역민들 경제 심리도 부정적 전망이 여전하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4분기(-0.5%) 이후 6분기 만이다. 지난해 1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 이어졌던 순성장도 역성장으로 바뀌었다.

내수를 구성하는 소비와 투자 모두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단 기간 내 살아날 것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0.2% 감소했다.

교육 등 서비스 소비는 소폭 증가했지만, 승용차의 류 등 재화소비가 부진했다.

투자에서는 건설투자(-1.1%), 설비투자(-2.1%), 지식재산생산물투자(-0.5%) 등 모든 항목에서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 등의 증가로 0.3%포인트를 회복했지만, 부문별 성장 기여도에서 내수는 -0.1%포인트, 순수출 기여도 역시 -0.1%포인트로 역성장했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 침체 분위기에 광주·전남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도 지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팽배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7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2로, 전월(93.4) 대비 1.8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 이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광주·전남지역 529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조사했다.

CCSI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 및 가계대출 지원 등으로

지난달 가계수입전망, 생활형편전망 등 대폭 감소했던 지표들이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얘기다.

전국 CCSI의 경우 지난 5월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100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22년 5월(102.3) 이후 무려 2년 2개월째 100 밑에서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구체적으로도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광주의 현재생활형편을 나타내는 지수는 1포인트 감소했다. 전남도 가계수입전망이 전월 대비 4포인트 감소했고 소비지출전망도 2포인트 줄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씨한국새농민 전남도회는 25일 오전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전남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고 전남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다짐하는 한편, 쌀 소비 촉진 퍼포먼스를 통해 쌀값 안정에 동참키로 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전남새농민회원 1000여명 쌀값 안정·소비 촉진 결의

장흥서 한마음 전진대회

농협 전남본부 캠페인 동참

쌀값 하락세가 멈추질 않는 상황에서 전남지역 농민들이 쌀값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에 팔을 걷어 붙였다.

농민들은 농협 전남본부를 중심으로 쌀 소비 중요성을 알리고 전남 쌀 홍보 캠페인에 적극 나서는데 등 쌀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5일 농협전남본부에 따르면 씨한국새농민 전남도회는 이날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전남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고 전남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한편, 쌀 소비 촉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새농민중앙회는 전국 17개 시도회 및 153개 시군회 1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매월 지역 내 선도농업인을 선정, 시상하

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 부부가 회원이 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안석 새농민중앙회장, 강제석 전남도회장, 박종택 농협 전남본부장, 전남 농협 시군 지부장과 전남지역 새농민회원 950명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새농민유공 시상,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 쌀 소비촉진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했다.

강 회장 등 새농민회 회원들은 특히 이날 쌀 소비촉진 퍼포먼스를 열고 농협중앙회가 추진중인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새농민회측은 "농업인의 소득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쌀값 안정화 및 쌀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쌀 한 가마(80kg)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18만 1148원으로, 지난 5일 가격(18만 3960원)보다 1.5%(2812원) 떨어졌다. 지난해 6월(18만 1884원)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최근 5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인 평년가격(19만

1022원)보다도 무려 5.1%(9874원) 하락했다.

햅쌀(조생종)이 나오는 8월 중순이 되면 광주·전남지역 농협 미국종합처리장(RPC)에 보관중인 기존 햅쌀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쌀 소비도 감소하는 시기라 이대로라면 올해 햅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농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농협 RPC 재고물량도 15만 9000 t(7월 15일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만 t 이상 많다.

농협 전남본부는 이에따라 쌀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27일 장흥 물축제 현장에서 '전남 브랜드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쌀 소비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강제석 회장은 "선도농업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전남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TP, 광양 스마트제조 인력 양성사업 착수

스마트 산단 전환 착수 보고회

철강 소재·이차 전지 인재 육성

(제)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23일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2024년 전남 광양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착수보고를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혁신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생산시설 노후화와 에너지비용 및 대기오염 부담을 배출하는 노후산단을 에너지 소비효율화는 물론 친환경 제조가 가능한 산단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추진한다.

광양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순천연계산단 3곳이 2023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됐으며,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스마트 물류플랫폼, 스마트 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광양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 내 제조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테크노파크 철강산업센터, 순천대, 순천제일대,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사업을 기획하고 올해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우성식 전남테크노파크 철강산업센터장은 착수 보고회에서 "광양 포스코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철강 소재부품 산업과 차세대 이차 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산업단지에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보고했다.

한편, 전남테크노파크는 철강, 이차 전지 특화산업 맞춤형 산업현장 스마트제조 혁신 컨설팅과 스마트제조 전환지원,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 실습 시뮬레이터 장비구축,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1070명을 육성하고 고급인력 220명을 취업 연계할 예정이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 130개사의 스마트제조 컨설팅교육과 10개사의 생산공정 스마트 전환 밀착지원을 통해 인력양성 수혜기업의 생산성을 10% 향상시키고 불량률 30%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스마트 제조혁신의 핵심 주체로 활동할 고급인력 양성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된 광양 국가 거점 산단과 울촌 제1 산단, 해룡 일반산단, 순천 일반산단 등 연계산단 입주기업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포스코퓨처엠 2분기 매출 1조원 아래로

전기차 캐즘 여파...23% 줄어

영업이익 27억...전년비 반토막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의 여파 속에서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소재 계열사 포스코퓨처엠의 올해 2분기 매출이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포 리튬 등 핵심 원료 가격 약세로 매출과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4.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전 분기와 비교해서도 92.8% 감소했다.

2분기 매출은 9155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 1930억원) 대비 23.3%, 전 분기(1조 1384억원)

대비 19.6% 각각 줄었다.

포스코퓨처엠의 분기 매출이 1조원을 밑돈 것은 2022년 4분기(7808억원) 이후 6개 분기만이다.

상품군 중에서는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양극재 매출이 2분기 5430억원으로 작년 동기(7863억원) 및 전 분기(7324억원)보다 각각 30.9%, 25.9% 감소했다.

순손실은 112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포스코퓨처엠은 주력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마진율도 개선 중이지만, 제품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리튬 등 원료 가격 약세로 인해 영업이익 회복에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주력인 배터리 소재 사업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933억원과 13억원을 기록했다. 리튬, 니켈 등 주요 원료 가격의 하락으로 1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개인형퇴직연금 수익률 전국 은행 중 1위

5분기 연속 은행권 전체 1위

광주은행이 2분기 개인형퇴직연금(IRP)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운용 수익률 부문에서 또다시 전국 은행 중 1위를 차지했다. 5분기 연속 은행권 전체 1위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광주은행 IRP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지난 2분기 기준 15.8%로, 시중은행 평균 수익률 13.2%보다 2.6%p 높았다. 이로써 광주은행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전국 은행 중 1위를 연달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에는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광주은행 분석이다.



광주은행은 개인자산 관리 서비스 영역을 은퇴 준비 및 노후대비를 위한 서비스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자산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한 전담센터(The PrimeAge Cente)를 출범했고 봉선금융센터 등 전문 PB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 맞춤형 상담 서비스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퇴직연금 자산운용 및 수익률 강화를 위해 수익률 관리 전문가를 배치해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배인영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적기에 추천하고 자산배분을 적극 조정한 게 도움이 됐다"며 "적극적인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를 통해 고객들의 은퇴 준비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오비맥주, 몽골에서 15년째 '희망의 숲' 조성

에르덴 지역 4만6500그루 심어

네이버 해피빈 모금액 기부도

오비맥주가 지난 24일 몽골 에르덴 지역에 위치한 '카스 희망의 숲' 일대에서 조림사업 15주년 기념식을 열고 국제환경단체 푸른아시아(대표 송봉호)와 함께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오비맥주 배하준 대표, 법무장정책홍보 부문 구자범 수석 부사장, 영업총괄 최상범 부사

장과 신기호 푸른아시아 몽골지부장, 에르덴 조림지 조합장, 몽골 환경난민 및 가족 등으로 구성된 환경 봉사단 40여명이 참석했다.

'카스 희망의 숲'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에 나무를 심는 대규모 환경개선 프로젝트다. 오비맥주는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푸른아시아와 함께 2010년부터 15년째 몽골 북동부 에르덴 지역에 조림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오비맥주가 현지 몽골 환경난민들과 함께 몽골에

심는 나무는 약 4만6500그루에 달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카스 희망의 숲' 현판을 제막하고 나무심기 봉사를 실시했다. 봉사단은 팀을 나누어 벌판에 비술나무 묘목들을 심는 식수작업과 직접 판 우물에서 양동이로 물을 길어 나무에 뿌리는 관수작업을 벌였다. 오비맥주는 조림사업은 물론 몽골 환경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유실수인 베타민 나무(자차르간), 몽골 양모공예품 원자재, 육포 생산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네티즌 8440여 명과 함께 조성한 2000만원 상당의 기부금도 이날 푸른아시아에 전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정보문화진흥원 콘텐츠기업지원센터

6차 신규 입주기업 3곳 내달 8일까지 모집

지사설립 가능 역외기업도 가능

(제)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오는 8월 8일까지 전남지역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6차 신규 입주기업 3곳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에 해당하고 창업한지 7년 미만인 기업으로, 전남도 내 본사 이전 및 지사 설립이 가능한 역외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거나 도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모집 규모는 전라남도 내주시 우정로 10에 위치한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내 기업협력동과 기술혁신동의 3개 실을 대상으로 총 3개의 기업을 모집한다.

입주기업 선정은 서류 평가와 PPT 발표 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 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기술성 및 개발능력, 성장성, 센터 협력 등 4개 항목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입주 가능하며,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입주 시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인프라 등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받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